

지역 매 아리

제7대 부안군의회
4년간 의정활동 마무리

제7대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부안 군의회 의원들은 28일 제7대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송별 간담회를 갖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군민을 위해 구슬땀 흘린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의원 임기를 마치게 된 오세웅 의장은 "제7대 의회 의원 모두는 부안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밀착형 정책마련에 힘써 왔다"면서 "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지난 2014년 7월 8일에 개원한 제7대 부안 군의회는 40회 회기(정례회 8, 임시회 32)를 445일 동안 운영하면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였다. 효율적인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조례제정대상을 적극 발굴하였고, 총 61개 안건(조례 333, 규칙 9, 예산안 14, 승인안 38, 동의안 35, 건의안 4, 결의안 27, 기타 181)을 의결하며 주요 지역현안과 민생 문제를 처리하였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22회 임시회에서 열리는 제8대 의회 임구성 및 개원식을 시작으로 부안군민을 위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월부터 무료 치매 진단검사 시행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가 6월까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진단검사를 7월부터 직접 시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28일 정읍시보건소와 정읍시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는 협약 병·의원에서 실시했으나 7월부터는 무료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까지 시행한다.

위촉한 협력의사가 진단 검사는 물론 치매 임상평가와 치매진단 및 환자상담 등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임시 개소했다. 이후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호호물품 제공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명원

중국시장 판로개척 적극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소장 문규환)가 주식회사 명원(대표 이종운)과 함께 고창군 농특산물과 기술이전 제품들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연구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의 박차를 가하면서 8개사의 28개 제품을 '중국 타오바오 쇼핑몰'에 입점시켰으며, (주)명원과 협력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칭맥 주식회사(대표 김재주) △고창농부의 아침(대표 김명철) △임성규네 고구마(대표 임성규) △신도복분자(대표 임영례) △고창명산 품목분자주(대표 노광록) △천삼영농조합법인(대표 주세원) △고창서해안 복분자주(대표 송지희) △홍삼베리(대표 유금호) △고창황토더덕(대표 김창수) 등 지역 기업에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1억원의 수출을 성사시켜 내달 4일 1차분 선적을 시작으로 고창군 농·특산물의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고창군 농·특산물
기술이전 제품 홍보 지속



연구소는 고창군의 베리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중국 산동성 위해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지역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에는 위해시 롯데백화점과 석도함에 '한국 전라북도 고창군농특산물'을 운영할 예정이다

며, 현재 10개의 수출업체를 20개 업체까지 늘려 추후 오프라인 매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분기별로 중국현지 '한국 전라북도 고창군농특산물' 매장에서 고창식품업체와 중국바이어가 미팅할 수 있는 수출상담회를 연 4회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소는 중국의 여러 가지 판매망과 노하우, 그리고 중국시장과 그에 따른 트렌드 및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명원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스타기업 및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문규환 소장은 "고창군 주요 농·특산물이 중국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나아가 중국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연구소와 고창군 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고창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발전 위해 최선을 다해”

김원진 부안군 자치행정과장 공직생활 명예로운 퇴임



"37년 짧게만 느껴진다. 아주 긴 시간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눈은 감고 기쁘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 같다."

37년여의 공직생활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며 한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아쉬움이 지난 그간의 세월을 회상했다.

농림 9급으로 시작한 5급 사무관으로 37년 간 마무리하는 김원진의 부안군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그는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그동안 국민이 세금으로 살았으면 충분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986년 부안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원진과장은 부안군 재무과·자치행정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진서 면장과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37년여의 공직기간 동안 살기 좋은 부안 건설 유공과 농업조사 유공, 군정추진 유공,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등 4차례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원진 과장은 지난 2016년 1월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오복오감정책과 소통·공감·동행행정 등 행정업무에 인문화를 접목한 감성행정으로 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부안 유치,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 용역 반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추진해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다정다감한 동료의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매사 꼼꼼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아 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적극

위기상황 발생 시 거주지 읍면동·시에 신청

정읍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고 비판 사망 뉴스 등과 관련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 소득자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부인과 어린 자녀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가족 없이 지내는 노인이 중한 질병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등 위기 상황 시 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나 병원비 등 위급상황에 맞게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2017년 11월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단전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살업정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관란 사유 추가)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000원, 4인기준 338만9,000원)이하, 재산 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실시

고창군이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고창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무장면과 상하면, 해리

면 등 각 읍·면 주민과 상하초·중학교,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교육청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은 주민보호를 위한 수습수단 등원과 교통통제, 현장대응요원 배

다"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000원, 4인기준 338만9,000원)이하, 재산 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어울림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 상품 개발 품평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어울림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 (회장 채오순)의 상품 개발 품평회를 가졌다. '어울림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는 2015년 강소농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수료한 농업인 중 장류 가공과 생강 생산·가공, 여주 생산·가공, 쌀 가공 농가 등 5명으로 결성된 모임체다. 이들은 매일 1회씩 회원들의 가공공정을 순회하며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크로스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상호 간 발전을 모색해오고 있다.

품평회는 회원들이 생산한 원료를 본인의 기존 제품과 블렌딩(Blending)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강을 이용해 편강을 만든 농가는 아로니아 편강을, 여주환을 만드는 농가는 생강 여주환을, 떡을 만드는 농가는 아로니아 한입떡, 여주 한입떡, 생강 한입떡을, 고추장을 만드는 농가는 아로니아 고추장, 귀리 고추장, 여주 고추장, 생강 고추장을 선보였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만든 제품을 상품화하기 전에 올해 강소농 경영 개선 후속교육을 받고 있는 동료 농가의 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상품을 보완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ncludes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product images and gift set options.